

No.20170201-001

제목: 신으로부터의 한마디

저자: 오기와라 히로시

페이지수: 449

장르: 소설

출간일: 2005년 03월 20일



<내용소개>

올해 가을 (3분기) 메이저 방송사에서 드라마화 결정!

직장인에게 깊은 공감과 통쾌함을 안겨주는 셸러리맨의 고군분투 이야기

“회사란 대체 어떤 곳인가?” 인생의 꿈과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장소? 돈을 벌기 위해 마지못해 출근하는 곳? 회사의 가축이라는 ‘사축’, 야근을 일삼는 ‘프로야근러’, 급여가 통장에 입금되자마자 빠져나가는 ‘월급 로그아웃’처럼 냉소적인 신조어들이 대거 등장하는 것을 보면 후자에 가까운 것 같다. 《신으로부터의 한마디》의 주인공 역시 회사 때문에 고민하는 셸러리맨이다.

대형 광고제작사를 그만두고 식품회사에 들어간 27세 남자 ‘사쿠라 료헤이’. 그는 전직 아마추어 밴드의 기타리스트 출신으로, 왼쪽 어깨에 새긴 문신만큼이나 자유롭고 대담한 면이 있다. 회사원이 된 뒤에는 직설적인 성격을 죽이고 살아가려 하지만 꼭 한 번씩 탈이 난다. 현 직장인 다미가와 식품의 간부들이 모두 참여한 기획 회의에서 자기 아이디어를 가로챈 상사와 싸우는 소란을 일으켜 해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런 그에게 일명 구조조정 대상자 수용소라 불리는 고객상담실로 인사이동이 내려진다. 6개월 전쯤 여자친구에게 차인 실연의 상처도 고스란히 남아 있는 료스케에게, 이젠 회사가 암묵적이면서도 노골적으로 퇴사를 권유한다.

고객상담실에는 언뜻 무능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유능한 동료들이 있었다. 강한 생명력을 뽐내는 사죄의 달인 ‘시노자키’, 예로 사이트에 일가견이 있는 ‘하자와’, 덩치는 크지만 말문이 막히는 ‘진보’, 매우 관대한 포용력을 지닌 ‘시시도’까지 고객상담실 5인조는 회사 내 낙오자들이라는 유대감을 바탕으로 끈끈한 동지애를 쌓아간다. 그리고 우연히 고객상담실의 성과를 발견한 부사장은 그들에게 은밀하고 중요한 미션을 내린다. 과연 료헤이와 동료들은 회사 상부의 음모와 비리를 터뜨리며 핵폭탄급 사이다를 맛 볼 수 있을까?

고객상담실의 상사인 시노자키는 회사를 오텍전골에 비유한다. 부장이건 과장이건 모두 한데 우글우글 모여 있는데, 냄비 안에서는 너무 중요했던 것들이 막상 밖으로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다만 다들 뛰쳐나가기를 두려워할 뿐이다. 이 소설은 빠듯한 회사 생활에 대한 순응을 요구하는 찬가가 아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셸러리맨을 졸업하는 이야기다. 사내 정치와 파벌싸움, 연공서

열, 불륜과 권력남용, 일방적인 해고, 잦은 이직, 그리고 아재개그에 이르기까지 직장인을 둘러싼 세상의 보편적인 주제들을 고르게 녹여냈다. 리얼리티와 유머가 균형 있게 어우러지며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이 지루함을 줄이고 공감과 흥미를 유발한다. 일본에서는 높은 인기 덕분에 2006년 WOWTV에서 드라마화, 영화화 되었으며 2014년 기준 65만부를 돌파했다. 또한 올해 가을 메이저 방송사에서 새롭게 연속 드라마화될 예정이다.

<저자소개>

오기와라 히로시

1956년 사이타마 현에서 태어났다. 광고제작사를 거쳐 1997년 <오로로 콩밭에서 붙잡아서>로 소설 스바루 신인상을 받으며 데뷔하였다. 경묘한 필치와 세련된 유머가 돋보이는 문장으로 정평이 나 있다. 기타 작품으로는 《내일의 기억》, 《모래의 왕국》, 《소문》, 제 155회 나오키상 수상작인 《바다가 보이는 이발소》등이 있다.

No.20170201-002

제목: 조용한 비

저자: 미야시타 나츠

페이지수: 107

장르: 소설

출간일: 2016년 12월 12일



<내용소개>

기억하지 못하는 여자와 그녀를 사랑한 남자를 통해 인간의 가능성을 이야기한 소설

인간의 기억은 과거의 일을 저장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질 때가 있다. 당시의 상황과 감정 상태, 상대방에 대한 복합적인 감상이 응축된 특별한 순간들은 '추억'으로 남는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 차곡차곡 쌓은 둘만의 기억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귀중한 것이다. 하지만 이 소설의 주인공은 그 보물이 매일 사라지는 것을 경험해야만 한다.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불편해 목발을 짚고 다니는 청년 '유키스케'. 크리스마스에 갑자기 회사 폐업 통보를 받는다. 짐작은 했지만 이렇게나 빨리 닥쳐올 줄은 몰랐기에 유키스케는 막막하기만 하다. 그는 길을 걸어가다 우연히 타이야끼 가게를 발견한다. 그곳에는 생각보다 맛있는 타이야끼를 만드는 여자 '코요미'가 있었다. 유키스케는 단골손님이 되어 코요미와 조금씩 친해지고, 어느새 그녀를 짝사랑하게 된다. 하지만 불행은 또 예고 없이 다가온다. 4월의 어느 날, 코요미는 사고를 당해 입원하게 되고 3개월이나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있다가 극적으로 눈을 뜬다. 다행히 신체에는 아무 문제 없었지만 순행성 기억상실증이라는 후유증이 남는다. 사고 이전의 기억은 갖고 있는데 사고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부터 코요미의 기억은 하루 단위로 리셋된다. 유키스케는 사고 전과 변함없는 태도로 그녀를 대하겠다고 다짐한다.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을 다음 날이면 잊어버리는 여자, 그녀를 사랑하며 모든 기억을 홀로 안고 있는 남자의 일상이 차분하고 수려한 문장으로 펼쳐진다.

핵심은 남녀주인공이 가진 '장애'가 아닌 그들의 '삶과 연애'다. 작가는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선택지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어디에서 의미를 찾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묻는다. 또한 자라온 환경과 성향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 사랑을 나누고 같이 걸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도록 한다.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가치관이 어긋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고 싶을 때 찾아오는 불안정함은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는 보편적인 고민이다.

제목처럼 조용하게 흘러가는 이 소설은 《양과 강철의 숲》으로 2015년 서점대상 1위를 수상한 미야시타 나츠의 데뷔작이다. 그녀는 이 작품을 원점으로 삼아, 시련을 맞이한 인간에게 주어진

는 가능성과 포기 및 방향 등을 그려 왔다. 출발점답게 더욱 깊은 상냥함과 쓸쓸함을 안고 있는 글이다. 독자는 1인칭 시점으로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유키스케에게 몰입하게 될 것이다. 코요미와 둘만의 세계가 확실히 존재한다는 희망이 진한 여운을 남긴다.

<저자소개>

미야시타 나츠

1967년 후쿠이 현에서 태어났으며, 조치대학 문학부 철학과를 졸업하였다. 2004년 〈조용한 비〉가 문학계 신인상 가작에 입선하며 등단하였다. 2007년 발표한 장편 소설 《스콜레 No.4》가 절찬 받았으며 2015년 간행된 《양과 강철의 숲》이 서점대상 1위, 키노베스 제1위, 브런치 북 어워드 대상의 삼관왕에 올랐다. 그 외 작품으로는 《멀리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기쁨의 노래》, 《태양의 파스타, 콩 수프》, 《시골 양복점 모델의 아내》, 《두 개의 증표》, 《겨우 그것뿐》 등이 있다.

No.20170201-003

제목: 가난한 자의 한 표

저자: 와타나베 테츠야

페이지수: 223

장르: 경제

출간일: 2016년 12월 24일



<내용소개>

‘글로벌리즘’ 세계경제의 붕괴와 쇄도하는 무혈혁명, 그 중심에 선 ‘가난한 자들’

지난 1월 20일, 등장부터 당선까지 놀라움 그 자체였던 도널드 트럼프가 제 45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였다. 그의 지지층은 미 중서부 쇠락한 산업지역인 ‘러스트 벨트’의 저소득층 백인 남성이다. 여기에 자신의 체면을 의식해 타 후보를 지지하는 척하며 실제로는 트럼프에게 표를 던진 ‘샤이 트럼프’들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상당한 파급력을 행사할 것이다. 취임 며칠 만에 TPP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하여 야당에서는 환영하고 여당은 비판하는 기이한 현상이 빚어졌다. 또한 멕시코가 비용을 100% 부담하는 조건으로 미국-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노라는 계획의 실현을 구체화 했다.

가난한 나라가 풍족해지면 전쟁이 벌어지고, 부유한 나라가 가난해지면 혁명이 일어난다. 미국·유럽 및 한국경제에 대한 평론으로 정평이 나 있는 와타나베 테츠야의 신간 《가난한 자의 한 표》의 도입부에 등장하는 문구다. 그는 세계는 이미 혁명기에 돌입했다고 주장한다. 유일한 답처럼 제시되었던 세계화와 신 자유주의는 몇 차례의 금융 위기를 통해 불안에 휩싸인다. 거대한 대중이 빈부격차의 확대와 끝없는 불황을 경험하며 부정하는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결국 서브프라임 사태를 기점으로 금융주도형 경제는 종말을 맞이했다. EU의 견고한 동맹은 브렉시트로 깨어졌으며, 미국은 앞서 말한 트럼프 쇼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한국은 사상 최악의 대통령 스캔들을 겪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기존에 순응해왔던 ‘가난한 자’들이 불만을 터뜨리며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내셔널리즘이다.

가난한 자들은 그 동안 일부 기득권층에 집중되어 있던 정치, 경제, 산업, 문화 구조의 잘못을 알고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으며, 분노하고 바로 잡기 위한 행동에 나선 것이다. 저자는 현재 혼란에 빠진 미국, 유럽, 한국과 중국의 상황을 살펴보고 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 타당한 사례와 근거를 제시하면서 분석해 나간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인터내셔널리즘이 다시 찾아올 것임을 제언하며 마무리한다.

지금 시대가 마주한 문제의 본질을 경제, 세금제도, 기업활동의 관점에서 짚어보며 글로벌 경제의 붕괴를 해설하고 있다. 가난한 자들의 한 표 한 표가 모인 방향이 100% 옳다고는 장담할 수

없으나,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변화인 것은 맞다. 보다 넓은 관점에서 주위 상황을 둘러볼 수 있도록 도와줄 책이다. 한국의 근황도 등장하기 때문에 더욱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목차소개>

- 제 1장: 혼란에 빠진 2017년의 세계경제
- 제 2장: <탈 글로벌리즘>으로 방향을 바꾼 세계
- 제 3장: 세계를 움직이는 <가난한 자의 한 표>
- 제 4장: 권리 남용자 <거저먹기> 때리기가 시작되었다
- 제 5장: 의심받는 <목숨의 가치>의 무게
- 제 6장: 포스트 글로벌리즘 - 세계경제의 가까운 미래

<저자소개>

와타나베 테츠야

작가 및 경제평론가. 1969년생. 니혼대학 법학부 경영법학과를 졸업하고 무역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독립하였다. 복수의 기업운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대규모 게시판에서 미국과 유럽 경제, 한국 경제 등의 평론이 화제가 되었다. 2009년 《정말 위험하다! 유럽경제》에서 유럽에 다가올 위기를 경고하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일본 국내외 경제와 정세를 리서치 및 분석하는 것에 정평이 나 있다. 다양한 정책 입안을 지원하고 잡지 기획·감수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No.20170201-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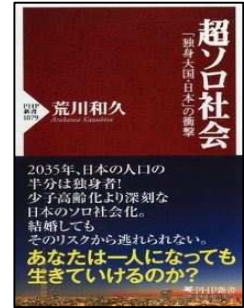
제목: 나 혼자 산다: 초 솔로사회

저자: 아라카와 카즈히사

페이지수: 277

장르: 경제

출간일: 2017년 01월 14일



<내용소개>

독신자가 급증하는 솔로 사회의 원인과 현황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한국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32.6세이고 여성은 30.0세다. 처음으로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이 30대에 진입하였다. 게다가 1000명중 오직 5.9명이 결혼하여, 정부가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한 1970년 이래 최저율을 기록하였다. N포세대에게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 일은 당장 이루기 부담스러운 먼 일처럼 느껴진다. 여자는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일자리를 찾기도 힘들어지고, 자신의 커리어와 결혼&육아 중 하나를 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다. 남자는 안정된 수입과 집을 살만한 충분한 자금이 생기기 전에는 결혼하려 하지 않는다. 이처럼 경제적 어려움이 결혼에 대한 결심을 약화시키고 인생의 후 순위로 미뤄버리는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 역시 만혼, 결혼 인구 감소 문제를 똑같이 겪고 있다. 저출산 및 고령화와 맞물려, 2035년에는 일본 인구의 절반 가량이 독신자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 책의 저자는 독신생활자 연구의 1인자라는 독특한 직함을 갖고 있다. 그가 바라보고 예측하는 일본 사회는, 일명 “초 솔로사회”다. 하지만 이는 일본 사회에 한정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개인화 및 가족을 포함한 기존 공동체의 붕괴는 전세계적인 흐름이고, 사회의 모습도 바뀌어가고 있다. 평생 한 직장에서 일하는 대신 이직과 부업을 통해 커리어를 향상시키고, 당장 자금이 없어도 펀딩을 통해 사업을 시작하고, 에어비앤비나 우버 같은 공유경제가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미혼 및 비혼으로 이어진다. 이 책은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미혼과 비혼, 이혼 상황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며 독신자 ‘집단’이 아닌 솔로 ‘개인’의 생활 양식과 소비 형태, 가치관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남성과 여성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 독신자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지녀야 할 힘과 능력, 자립과 자유에 대해 고찰한다. 또한 결혼을 했다가 다시 혼자가 된 사람들의 경우도 함께 생각해본다.

솔로들의 사회는 고립 사회가 아니며, ‘가족’과 대립하는 사회도 아니다. 각자 자신의 삶을 지탱하며 살아가는 자립사회다. 일본과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 결혼 인구 감소 등 비슷한 문제를 비슷한 추세로 겪고 있다. 시작은 일본이 먼저였지만 속도는 한국이 훨씬 빠르다. 이제까지 독신자는 감소시켜야 하는 대상, 결혼과 출산을 통해 미래 노동력과 재정의 기반을 제공하지 않으려는

집단으로 비난 받았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현상이 아니라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일 수도 있다. 이 타이틀은 새로운 사회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목차소개>

- 제 1장: 솔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간다
- 제 2장: 솔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
- 제 3장: 남자들은 왜 결혼을 싫어하게 됐을까
- 제 4장: 결혼했다가 솔로로 돌아오는 사람들
- 제 5장: 솔로들의 소비
- 제 6장: 솔로사회의 미래

<저자소개>

아라카와 카즈히사

하쿠호도 솔로활동계 남자연구 프로젝트 리더. 와세다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하쿠호도에 입사하였으며 자동차, 음료, 식품, 화장품, 영화, 유통, 통신판매, 주택 등 폭넓은 업종의 기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캐릭터 개발과 안테나숍, 레스토랑 운영에도 참여하고 있다. 독신생활자 연구의 1인자로서 TV, 라디오, 신문, 잡지, WEB미디어 등에 다수 출연하였다. 저서로는 《결혼하지 않는 남자들 - 계속 늘어나는 미혼남성 솔로남의 리얼》이 있다.

No.20170201-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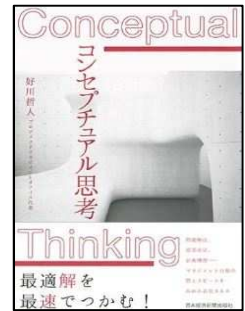
제목: 본질을 단번에 포착하는 사고방식, Conceptual Thinking

저자: 요시카와 텃토

페이지수: 288

장르: 자기계발

출간일: 2017년 01월 19일



<내용소개>

문제의 본질을 단번에 포착해내는 개념적 사고법(CONCEPTUAL THINKING)을 소개한다

대부분의 업무가 '기획-실행'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해결 방법을 기획 및 실행함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함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 왔다. 무엇을 문제로 설정하는지에 따라 후속 과정도 바뀌어버리기 때문이다.

저자는 일본인 및 일본 기업이 세부 사항에 매몰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세계적인 흐름에서 일본이 소외되는 갈라파고스 현상이 나타났다.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제품 목표를 명확히 하고 어울리는 기능을 유기적으로 추가해나가야 하는데, 일본 기업들은 각각의 좋은 기능을 마구 넣는 데 집중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파악하고, 가치를 판단하며, 전체를 그릴 줄 아는 능력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개념적 스킬(Conceptual Skill)이다. 1955년 하버드 대학 교수 로버트 카츠는 관리직이 갖춰야 할 능력 가운데 문제와 사물의 본질을 포착하는 '개념적 스킬'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약 60년 후, 각자 맡은 바 업무를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실행해야 하는 요즘 시대에는 관리직뿐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맨에게 필요한 역량이 되었다. 이 책은 개념적 스킬의 3가지 조건을 전제로, 행동과 사고 두 가지 측면을 다룬다.

저자는 문제의 본질을 찾아내고 응용하는 개념적 사고(Conceptual Thinking)가 이루어져야 행동 프로세스에서 개념적 스킬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본문에서는 개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의 특징을 먼저 살펴본다. 도대체 '개념적(Conceptual)'이 무엇인지 정의를 재차 확인한 다음, 개념적 스킬과 개념적 사고의 관계, 개념적 사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을 자세히 소개한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사물의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으며 가치를 창출하고 결정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문제를 규명하고 해결하는 단계를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후반부는 개념적 사고를 이루는 5개 축과 개념적 행동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다룬다. 전체와 세부사항을 함께 볼 수 있는 대국/분석의 축, 자유로운 생각의 범위를 넓혀주는 추상/구체화의 축,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며 제3자로서 검토하는 주관/객관의 축, 논리와 순간적인 영감 모두 중요하게 다룰 줄 아는 직관/논리의 축, 현재와 미래를 통합하는 장기/단기의 축을 기반으로

개념적 사고를 모델화 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상세한 사례와 함께 펼쳐나간다.

자신의 주위에 있는 상황과 사물을 구조적,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정확한 본질을 파악하고 싶은 사람에게 유용한 책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자기계발서이다.

<목차소개>

- 제 1장: '개념적인(Conceptual)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
- 제 2장: 개념적(Conceptual) 이란
- 제 3장: 개념적 스킬과 개념적 사고
- 제 4장: CONCEPTUAL 사고의 모델
- 제 5장: 개념적인(Conceptual) 사고가 가능하게 하는 것
- 제 6장: 대국/분석의 사고축 - 나무도 숲도 본다
- 제 7장: 추상/구체화의 사고축 - 자유롭게 생각한다
- 제 8장: 주관/객관의 사고축 - 자기가 생각해서 정하고, 제3자의 입장에서 재검토한다
- 제 9장: 직관/논리의 사고축 - 논리도 번뜩이는 영감도 소중히 한다
- 제 10장: 장기/단기의 사고축 - 미래와 현재를 통합한다
- 제 11장: 개념적(Conceptual) 행동
- 제 12장: Being Conceptual

<저자소개>

요시카와 텃토

'M&T 컨설팅' 및 주식회사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대표. 기술경영 컨설턴트로서 다수의 신규사업개발과 상품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Innovative Leader Training을 담당해 왔다. <자신에게 적합한 매니지먼트 스타일 확립>을 컨셉트로 한 서비스 브랜드 <PM style>을 세우고 본질을 배울 수 있는 트레이닝을 제공하고 있다. MBA, 기술사(정보부문).

No.20170201-006

제목: '용서할 수 없어'라는 병

저자: 카타다 타마미

페이지수: 175

장르: 심리

출간일: 2015년 12월 24일



<내용소개>

타인을 용서할 수 없다는 분노를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설명한다

대인관계에서 빚어지는 일들 중에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해소되지 않는 응어리도 있다. 자주 얼굴을 보는 사이니까 혹은 다시는 안 볼 사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여기며 잘 지내다가도 한 번씩 울컥하고 올라오는 기억과 원망들이다. 타인에게는 사소한 트러블이지만 당사자에게는 평생 사라지지 않는 분노의 불씨일 수 있다. 심한 경우에는 본인이나 타인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왜, 사람들은 해묵은 감정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정신과 의사인 이 책의 저자에게도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다. 친할머니와 어머니였다. 고부관계의 갈등은 어린 저자에게도 상처로 돌아왔다. 정신적인 학대를 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양가적인 태도를 보였기에 마냥 증오할 수도 없었다. 이 책은 본인의 경험을 계기로 삼아 집필한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용서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절대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그 심리상태를 분석하며 원인과 대처방법을 가르쳐주고자 한다.

1장은 타인을 용서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소개한다. 편파적이고 거만한 상사, 출세하여 잘 나가는 동기,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부하, 배신한 친구,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 등이다. 박탈감과 열등감 혹은 지지 않아도 될 불이익과 책임을 안겨주는 케이스다. 2장에서는 용서의 의미가 잘못 해석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용서하지 못하는 원인을 다방면에서 분석한다. 이어 3장에서는 그 불편하고 힘든 상태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는 듯한 사람들의 특징에 정신과 의사로서의 고찰을 덧붙인다. 누군가를 죽음으로 잃었을 경우에 초점을 맞춰 심리적 지연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들을 짚어 본다. 후반부에는 보다 즐거운 인생을 위해 유용할 처방전을 제시한다. “용서할 수 없어” 병에서 벗어나기 위한 4단계 지침을 상세히 설명하고,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용서하는 방법을 전한다. 누군가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미움의 밑바닥에 스스로에 대한 미움이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된다. 전문지식을 끌어와 신뢰도를 높이면서도 심리학 지식이 없는 일반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설하였다.

저자가 이런 감정을 병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자리 잡아 에너지와 정신상태를 좀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대상이 죽고 없는데도 용서할 수 없다는 미움만 수 십 년이나 남아 있다면 무슨 소용일까? 분노를 성장의 계기로 전환시켜보자. 이 책이 힌트가 될 것이다.

<목차소개>

제 1장: 타인을 용서할 수 없어서 괴로운 사람들

제 2장: 왜 용서할 수 없는 것일까?

제 3장: “용서할 수 없어” 상태를 질질 끄는 사람의 특징

제 4장: “용서할 수 없어”라는 병에서 벗어나기 위한 4-STEP

제 5장: “용서할 수 없는 자신”을 용서하기 위해

<저자소개>

카타다 타마미

정신과 의사, 교토대학 비상근 강사. 히로시마 현에서 태어났으며 오사카대학 의학부를 졸업하였다. 교토대학 대학원 인간·환경학 연구과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프랑스 정부 급비 유학생으로 파리 제 8 대학 정신분석학부에서 라캉파 정신분석을 공부했다. 정신과 의사로서 임상 경험을 쌓은 뒤 범죄심리와 심리질환의 구조 분석 활동을 하고 있다. 정신분석학적 시점에서 사회의 기저에 자리잡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도 탐구한다. 주요 저서로는 《타인을 공격해야만 하는 사람》, 《타인의 의견을 듣지 않는 사람》, 《질투를 멈출 수 없는 사람》 등이 있다.

No.20170201-007

제목: 왜 저 사람의 부탁은 들어주게 되는 걸까?: 회사 언어 탐구 생활

저자: 홋타 슈고

페이지수: 203

장르: 자기계발

출간일: 2014년 02월 05일



<내용소개>

동료들과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언어학/심리학에 기반한 '업무 상 언어 표현'의 비결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 어느 곳이나 완벽히 혼자 모든 일을 맡아 하는 곳은 없으며, 같은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의견과 도움을 주고 받게 된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예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부러 그러나 싶을 정도로 심술궂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똑 같은 상황인데도 간단명료하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 본인도 헷갈려 하는 사람도 있다. 언어적/비언어적 의사 소통 도구를 얼마나 능숙하게 활용하는가가 업무 능력에 크게 기여할 수도 있다. 상사가 내리는 지시를 제대로 이해하여 수행하고, 원하는 답을 제시하고, 상대방 마음 상하는 일 없이 일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제목처럼 유난히 타인의 선의를 잘 이끌어내는 동료들이 있다. 언어는 단순히 의미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생각과 행동을 움직이는 힘을 발휘하는 커뮤니케이션 매체다. 그 힘을 활용하는 것에도 몇 가지 스킬이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언어학 전문가로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도움이 될 언어 활용 방법을 알려준다.

1장은 말의 힘이 어떻게 사람을 움직이는가에 대한 내용이다.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변화를 이끌어내는 언어의 서브리미널 효과로 판단과 기억을 바꾸기, 그런 힘이 발휘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2장에서는 자기자신을 변화시키는 스킬, 행동을 유도하는 스킬, 언어 표현을 바꾸는 스킬 등을 소개한다. 언어 습관이 바뀌면 다른 사람이 된다. 내면에 의욕 스위치를 만들어 통제하는 방법, 말로 자기암시 걸기, 계획된 우연 만들기, 상대방이 화를 낼 때 대처 방법 등을 설명한다. 3장에서는 말이 갖는 규칙을 통해 타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법을 전수한다. 그라이스가 제시한 '협조의 원리'에 입각한 궁극의 한 마디, 가벼운 조크와 아재개그에 숨은 고도의 테크닉, 이메일과 서류 등 서면 소통에서 문자가 갖는 힘 그리고 협조의 원리를 업무 상에서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준다. 마지막 4장은 업무에 임하는 성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을 다룬다. 언뜻 보기에 아무 문제 없는 말 같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고민되는 말, 특정 말투의 차이, 주의해야 할 표현 등에 대해 궁금증을 해결해 준다.

일의 대부분은 '말'로 이루어진다. 미처 알지 못했던 커뮤니케이션 팁, 대인관계의 윤활유가 되어 줄 언어표현을 언어학·심리학적 지식과 엮어 가르쳐주는 유용한 책이다.

<목차소개>

제 1장: 말의 힘으로 사람을 움직여라!

제 2장: 말을 바꿔서 자신을 바꿔라!

제 3장: 말의 규칙으로 마음을 사로잡아라!

제 4장: 어른의 소양으로서 갖춰야 할 업무적 언어

<저자소개>

훗타 슈고

1968 년생. 메이지대학 법학부 교수, 언어학 박사(시카고 대학). 하와이대학 로스쿨 객원 연구원. 전공은 사법커뮤니케이션의 사회과학적 분석, 법언어학, 논리언어학이다. 자기 회사를 경영하는 등 비즈니스도 펼치고 있다. 저서로는 《법 컨텍스트의 언어 이론》, 《특정 사람하고만 잘 지내는 것은 결국 당신의 마음이 차갑기 때문이다》, 《술자리에는 기어서라도 가라!》 등이 있다.

No.20170201-008

제목: 먹는 힘

저자: 시오다 요시타카

페이지수: 222

장르: 건강

출간일: 2017년 01월 20일



<내용소개>

평균수명 100세 시대, 인생 최후의 순간까지 건강한 구강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요즘에는 40~50대 중에도 틀니를 착용하거나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다. 잇몸염증이나 충치 등 구강 건강을 놓쳐버린 결과다. 틀니 및 임플란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보험상품들이 속속 등장했다. 2014년 만75세 이상부터 2016년 만65세 이상까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도 단계적으로 낮아져 혜택 범위를 넓혔다. 한편 투병 중인 환자나 보조도구를 이용해도 음식 섭취가 힘든 고령자용 유동식 시장은 점차 성장 중이다.

의료 저널리스트인 저자는 내과와 치과 사이에서 방치된 입 속에 건강의 열쇠가 숨어 있다고 말한다. '자신의 치아로 씹어 먹는 힘'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죽음 직전까지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것이다. 평균수명이 100세에 가까워지는 이 때, 사람들의 구강 기능은 오히려 쇠퇴하고 있다. 어떤 의사들은 음식을 입으로 섭취하는 것을 치료과정의 방해물처럼 여긴다. 전문분야가 1순위 인데다가 먹기의 중요성에 대해 배운 적도 없기에 당연히 경시하는 것일지 모른다.

이 책에서는 현재 의료계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며 사람들의 구강 기능이 약화되는 원인을 분석해 본다. 노인들이 병원에 입원 했다가 퇴원하고 나면 그 전보다 체력이나 면역력이 낮아지는 경우가 꽤 있다. 의사들은 환자에게 무언가 먹는 것을 최대한 참으라고 지시한다. 조금이라도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유동식으로 바꾸고 점액을 주사한다. 코에 관을 삽입하거나 위루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하기도 한다. 신체 기능을 복구시켜줘야 할 병원이 '먹지 못하는 고령자'를 만들어내고 있는 셈이다.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식생활을 지원해 줄 구강기능 전문의가 없는 점도 문제다. 여기서 말하는 구강기능이란 입 속에서 목구멍으로 음식물이 제대로 씹어 넘기는 기능적인 측면을 가리킨다. 현재의 치과는 치아의 상태에만 집중하므로 급격한 고령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틀니 및 임플란트 같은 사후적·보조적 치료만 하게 되는 것이다. 저자는 먹는 힘을 관리하는 주치의 <식의(食医)>가 등장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구강기능 저하를 막을 수 있는 예방법까지 함께 설명한다.

우리는 소중한 것이 사라진 뒤에야 그 가치를 깨닫는다. 젊었을 적에는 튼튼한 치아로 입 속 음식

식물을 씹고 식도로 넘기는 연하작용이 너무 당연해 의식조차 못한다. 그러다 불편함을 느껴야 뒤늦게 후회한다. '먹는 것'의 의의를 생각해보며 죽는 순간까지 주어진 신체로 활기차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보자.

<목차소개>

- 제 1장: 구강 재활로 <먹는 힘>이 되살아난다
- 제 2장: <먹지 못하는 고령자>는 병원에서 생겨난다
- 제 3장: 의사는 왜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가?
- 제 4장: 의과와 치과의 좁은 틈새로 간과되어 온 입 속
- 제 5장: 병원에 입원하면 잊어버리고 마는 <씹는 힘>
- 제 6장: 급격한 고령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치과의 사정
- 제 7장: 위르는 한 번 더 먹기 위한 과정
- 제 8장: 먹기 위한 주치의 <식의(食医)>를 만든다!
- 제 9장: <영양 서포트>가 <먹기 서포트>를 지탱한다
- 제 10장: <먹는 힘>의 저하를 예방하는 최첨단 시스템
- 제 11장: <먹는 것>의 의의를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저자소개>

시오다 요시타카

의료 저널리스트 및 연출가. 1957년 도쿄에서 태어났다. 세이조대학 문예학부를 졸업하고 영화제작 배급사인 닛카쓰·쇼치쿠 등에서 영화 조감독으로 근무한 후, NHK·니혼 테레비·TBS 등에서 디렉터 및 보도프로그램 연출을 맡았다. 현재는 의료 저널리스트로서 <의료사고><구급의료><연수의 문제><고령의료><위루문제>등에 대해 영상연출 및 취재 집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다큐멘터리 인간극장 <버리면 끝이야!><시리즈 ER24시>, 저서 《의료에 의지하지 않는 죽음》 등이 있다.

No.20170201-009

제목: 생글생글 바이러스

저자: 쿠스노키 시게노리(글), 사타케 미호(그림)

페이지수: 79

장르: 아동 문학

출간일: 2016년 04월 19일



<내용소개>

지금으로부터 100년 후의 세상, 천재 소년 과학자의 비밀 계획을 그린 공상과학 동화

이야기의 배경은 100년 뒤의 미래입니다. 은하계에서 꽤 멀리 떨어진 우주의 암흑 속에 소행성 크기만한 우주선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도의 기술을 앞세워 생물이체가 살고 있는 행성들을 차례로 정복해 온 '우주베다제국'의 이다 대왕이 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대항하려는 별은 아예 소멸시켜 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목표물은 태양계의 지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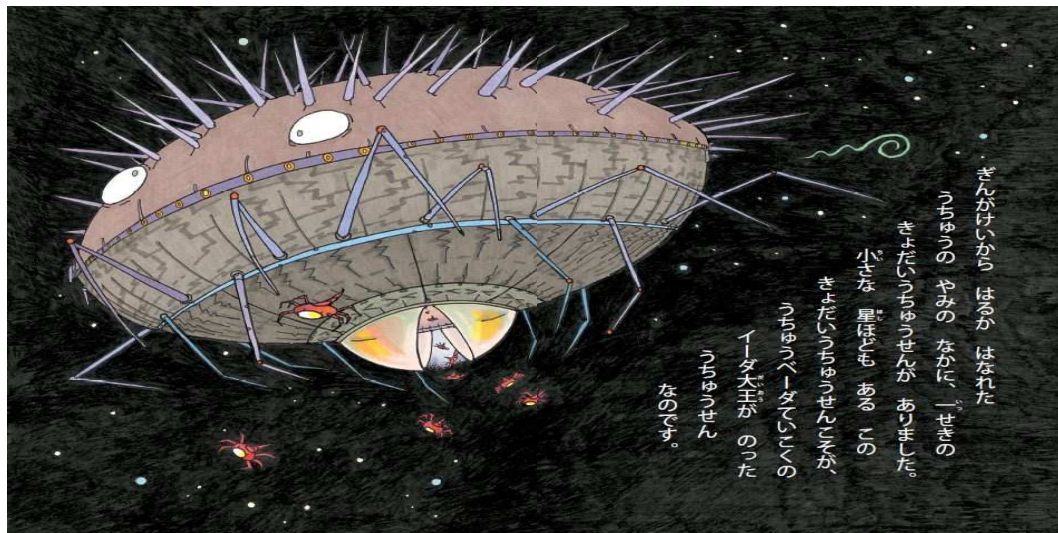
제국의 대왕과 장군, 과학자들은 아름다운 별 지구를 더럽히고 파괴하는 인간들에게 분개하며 자신들이 직접 지구를 관리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인간을 없앨 수 있을까요? 지구에 상처를 주지 않는 방법을 궁리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중, 캡슐 형태로 전 우주를 떠돌며 모든 지식을 흡수한 천재 소년 과학자 '하카세'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지구에 <생글생글 바이러스>를 뿌려서 인간들의 마음을 상냥하고 친절하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돼 생글생글 병에 걸리면, 상대방을 배려하고 타인을 위해 무엇이든 베풀고 싶은 욕구가 강해지고, 서로 전염 되지만 약은 없습니다. 생글생글 병에 걸린 인간들은 지구를 손에 넣으려는 우주베다제국까지도 따스하게 환영할 것이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지구를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계획입니다.

이다 대왕은 그 계획을 허락하고, 바이러스가 살포된 지구에는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통 받던 나라의 사람들은 세계 곳곳에서 보내온 먹을 것과 약을 받게 됩니다. 모두 생글생글 웃으며 자기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 해 줄 것이 없는지 생각합니다. 단 7일 만에, 지구는 우주베다제국의 의도대로 웃음과 친절이 가득한 평화를 맞이합니다. 이다 대왕과 장군들은 우주에서 온 손님을 축복하는 지구인들의 앞에 정체를 드러냅니다. 우주선에서 내려 각국의 지도자들을 상대로 지구 정복을 선언하려는 찰나, 시원하게 세 번의 재채기를 합니다. 장군들도 차례로 재채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두 변했습니다. 생글생글 웃는 온화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과학자 하카세는 우주베다제국 사람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제 지구와 전 우주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지구는 다양한 형태의 전쟁과 환경오염에 시달려 왔습니다. 모두들 타인을 위하여 살

아간다면 좋을 텐데, 하는 상상을 실현한 공상과학 동화입니다. 전개될 내용을 궁금해 하며 흥미롭게 책장을 넘기는 사이 평화의 소중함을 배우게 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읽으면 좋을 책입니다.

<본문 이미지>



<저자소개>

쿠스노키 시게노리(글),

1961년생. 초등학교 교사, 나루토 시립 도서관 부관장을 거쳐 아동문학을 중심으로 창작활동과 강연 활동을 시작하였다. 《혼나지 않게 해주세요》, 《안경을 쓰면》, 《선물 추천》, 〈1학년의 1년〉 시리즈, 〈건강한 마음을 키워주는 그림책〉시리즈 등 다수의 일본 및 해외번역 작품이 있다.

사타케 미호(그림)

도야마 현 출신. 다수의 SF 및 판타지 삽화를 그렸으며 다채로운 터치로 이야기 속 세계를 매력적으로 표현한다. 삽화 담당 작품으로는 〈마녀의 우편배달〉시리즈 3~6권, 〈분더바와 친구들〉시리즈, 〈대마법사 크레스 먼시〉시리즈, 〈린 계곡의 르완〉시리즈, 《남쪽에서 온 남자》, 《아야와 마녀》 등이 있다.

No.20170201-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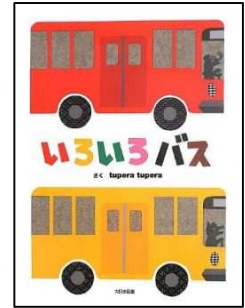
제목: 알록달록 색깔 버스

저자: tupera tupera

페이지수: 32

장르: 아동 그림책

출간일: 2013년 06월



<내용소개>

빨간색 버스, 노란색 버스, 다양한 색깔의 버스 안에는 어떤 손님이 타고 있을까요?

빨간색 버스가 달려옵니다. 멈춰서자, 잘 익은 빨간 토마토들이 데굴데굴 내립니다. 긴 다리를 흐느적대며 자랑하는 빨간머리 문어도 내립니다. 이번에는 노란색 버스가 달려옵니다. 멈춰서자, 부드럽고 폭신한 오믈렛이 내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도 내립니다. 모두 버스를 닮은 샛노란 빛입니다. 이번에는 초록색 버스가 달려옵니다. 저 안에는 무엇이 타고 있었을까요? 미끈한 연둣빛 몸의 개구리가 내리고, 무성한 나뭇잎을 자랑하는 나무도 내립니다. 버스 공무니를 엉금엉금 뒤따라가는 거북이까지도 초록빛입니다. 검은색, 갈색, 분홍색, 흰색 등 알록달록 다양한 색깔의 버스들이 모인 종점으로 가 봅시다. 끝까지 타고 있던 손님들은 누구일까요?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탈 것인 '버스'를 이용하여 놀이를 하듯 색깔 개념을 배울 수 있는 그림책입니다. 선명한 색감과 심플한 그림체가 인상적입니다. 똑 같은 색의 버스와 손님을 구분하기 위해 질감에 변화를 주어 개성있게 표현했습니다. 토마토, 별, 개구리, 고래 등 버스와 같은 색깔을 가진 손님들을 상상하고 알아맞히는 재미가 있습니다. 2,3세 유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나이대에서 즐길 수 있는 수준입니다.

<본문 이미지>





<저자소개>

tupera tupera

카메야마 츠타야, 나카가와 아츠코의 2인 유닛. 그림책과 일러스트레이션을 비롯해 공작, 워크숍, 무대미술,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하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곰돌이 팬티》, 《모자를 벗으면》, 《뱀이 꿀꺽, 무엇을 삼켰나?》, 《얼굴 노트》, 《악어의 모험》, 《동물 알파벳 서커스》, 《판다 목욕탕》, 작품집 《WONDER WORLD》 등이 있다.